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도미니카공화국

Dominican Republic

2018년12월27일 | 조사역(G3) 김예진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49천 km ² 	인구 10.3백만명 (2018기준)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대외정책 경제중심 실리주의 
GDP 810.26억달러 	1인당GDP 7,883.40달러 	통화단위 Dominican Peso 	환율(U\$기준) 49.50 

- 카리브해 서인도제도의 히스파놀라 섬 동부 2/3를 차지하고 있는 도미니카공화국은 인구 10.3백만 명, 1인당 GDP 7,883달러의 중소득국임.
- 1961년 독재정치 종식 이후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이 확립되어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2016년 우파 성향의 여당 출신인 다닐로 메디나가 재선에 성공하여 안정적인 정책 추진력을 유지하였음.
- 전통적으로 관광업, 경공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최근 세계경기회복으로 인한 관광업 및 건설업 등 전반적인 산업의 성장으로 중남미 국가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62. 6. 25 수교 (북한과는 미수교)

주요협정 문화협정('69), 과학기술협력협정('82), 사증면제협정('82), 대외경제협력기금협정('06), 투자보장협정('08)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5	2016	2017	주요품목
수 출	265,024	308,215	266,911	자동차, 차량 부품, 건전지 등
수 입	78,626	83,362	118,775	의료 용품, 음료, 섬유 등

해외직접투자현황(2018년 6월 말 누계, 총투자기준) 23건, 7,361천달러

국내경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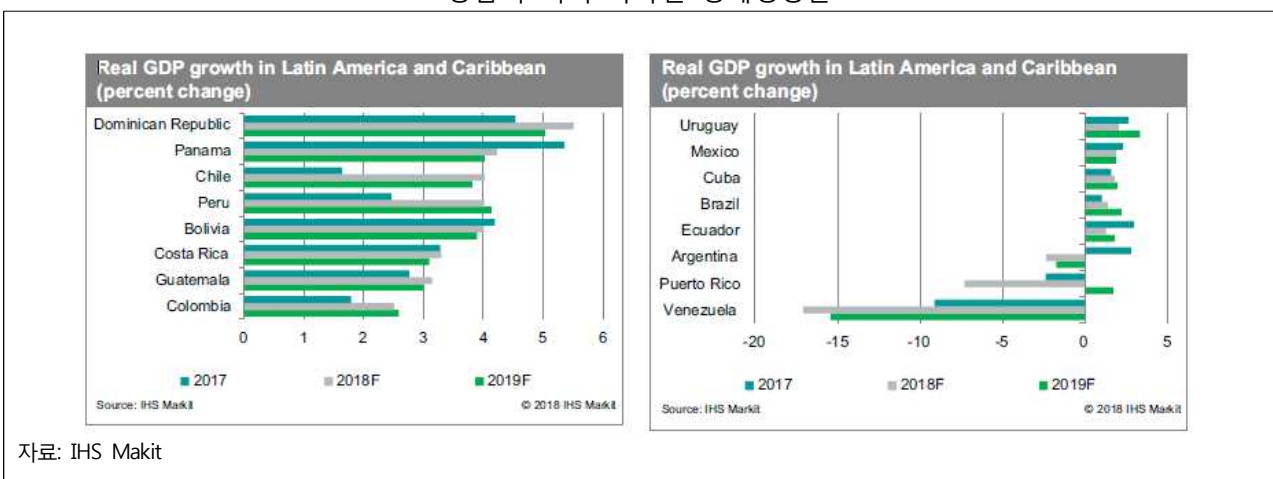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f
경제성장률	7.6	7.0	6.6	4.6	6.4
소비자물가상승률	3.0	0.8	1.6	3.3	4.3
재정수지/GDP	-2.9	-0.2	-2.8	-3.2	-3.0

자료: IMF, EU

관광업 및 건설업 호황으로 인한 경제 성장

- 도미니카공화국은 세계 경기회복에 따른 관광업황 개선 및 관광-인프라 분야 건설업 호조 등 전반적인 산업의 활성화로 최근 5개년 평균 6.4%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이는 **중남미 국가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로 2019년에도 주변국 대비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호텔, 교통·발전 인프라, 주거 단지 건설로 인해 건설업이 활발해졌으며 재외국민 송금액 증가, 자유 무역지대 내 제조업의 성장 및 FDI 유입이 경제성장률의 주요 견인 요소로 작용함.
 - 관광업의 지속적인 호조 예상과 중국과의 협력 관계 개선, 정부의 확장 정책 등을 고려할 때 동국의 경제 성장은 지속되나, 전반적인 법·제도 체계 미비, 부가가치가 낮은 주력 수출 품목, 사회간접자본 시설 부족 등의 문제로 성장 속도는 2019-2020년에 5%대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됨.

<중남미 지역 국가별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안정적 수준에서 소폭 상승

- 가파른 경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2018년 유가, 교통비, 주거비, 수입 식료품 등의 상승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이는 여전히 중앙은행의 목표 범위*인 4±1%에 부합하는 수준임.

* 2012년도에 채택된 물가상승률 관리 정책

이자비용 및 재정지출 증가로 재정적자 지속 중

- 국제 원유 가격 상승에 따른 전력 보조금 증가, 2017년 대규모 허리케인 피해 복구 비용, 잦은 정전으로 인한 손실 등으로 인해 정부 지출이 증가하였음.
- 다만, Punta Catalina 석탄화력발전소가 2018년도 말 운영을 개시할 예정인 바, 정부의 자본 지출 및 보조금, 정전 손실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도미니카공화국 정부 재정지출 및 이자비용 현황>

(단위: %)

	2014	2015	2016	2017	2018 ^f
GDP 대비 재정지출	17.3	17.3	17.5	17.9	18.2
GDP 대비 이자비용	2.4	2.6	2.9	3.0	3.4

자료: EIU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f
경 상 수 지	-2,170	-1,280	-815	-165	-1,722
경상수지/GDP	-3.3	-1.9	-1.1	-0.2	-2.1
상 품 수 지	-7,374	-7,465	-7,559	-7,580	-9,531
상 품 수 출	9,899	9,442	9,840	10,121	11,072
상 품 수 입	17,273	16,907	17,399	17,700	20,603
외 환 보 유 액	4,833	5,239	6,020	6,748	7,002
총 외 채	26,706	26,701	28,424	27,627	29,456
총외채잔액/GDP	40.4	38.8	39.3	36.4	36.4
D.S.R.	15.6	28.2	14.1	13.5	12.4

자료: IMF, EIU

수출 확대로 경상수지 적자폭 2017년 25년래 최저치 기록

- 재외국민 송금액, 관광·인프라·제조업 분야 외국인 투자, 자유무역지대 내 제조업, 금 수출 확대가 경상수지 성장을 견인함.
- 2017년도 165백만달러까지 축소되었던 경상수지 적자는 원유가격 상승으로 2018년 다시 확대되었음. 다만, 관광수입 및 재외국민 송금 증가의 영향으로 경상수지 적자폭이 일부 완화되었으며, 적극적인 수출·외국인 투자 촉진 정책으로 인해 향후 원유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적자 확대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외채상환능력

국제금융시장을 통한 외화 조달이 활발하고 채무구조개선 진행 중

- 국내 자금 시장의 한계로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비교적 높고, 정부 총 부채 중 외채 비중(약 70%)도 높아 환율 변동에 취약한 구조임. 또한 외환보유고 대비 외채규모가 큰 편이지만, 최근 국내시장 활성화 및 장기·고정금리 채권 등을 통해 외화 채무 구조를 개선하는 추세임.

구조적취약성

전력 부족 문제는 산업발전의 저해 요소

- 1999년 화력발전과 배전부문을 민간에 분할 매각하였으나, 매각 이후 배전설비 투자 부진 및 높은 전력 손실률 등으로 2003년 재국유화 하였음.
- 재국유화 조치 이후에도 공영 전력회사들의 대규모 적자 보전 및 최빈곤층에 대한 전기료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영전력회사들의 낙후된 배전설비로 인해 대규모 정전이 자주 발생하는 등 불안정한 전력 공급으로 주요 제조업 설비 및 관광 리조트의 경우 자가발전 설비를 별도로 구축 및 운영하고 있음. 이에 따르는 비효율성은 경제 성장에 큰 저해요소로 작용함.

만연한 부패와 미비한 제도·법 체계가 정책 추진 및 투자 활동 저해

- 2017년 오데브레시(Odebrecht) 부패 스캔들*에 도미니카공화국의 관료들도 일부 연루되었고, 이외에도 부정·부패가 만연하며 전반적으로 미비한 행정 제도 및 법 체계는 정책 추진과 투자 촉진에 방해 요소임.
※ 오데브레시(Odebrecht) 부패 스캔들 : 브라질계 건설회사인 Odebrecht가 브라질,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의 전·현직 대통령 및 고위 관료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며 사업 독점권 등의 혜택을 받아온 사건으로 도미니카 공화국은 2001년~2014년 사이 약 92백만달러를 뇌물로 수뢰

성장잠재력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통한 성장 발판 마련

- 2018년 대만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중국과의 양자 협약을 체결하여 관광 촉진, 송전망 프로젝트 개발, 항공 서비스 협정 체결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관광업 시장 영역을 확장하였음.

수출 상품 다각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가치창출 기반 마련

-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FTZ 지원 등을 통해 주요 수출 상품인 섬유 이외 담배, 의료 장비, 광물, 건설과 같은 고부가가치 수출 상품으로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음.

정책성과

Punta Catalina 화력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내수 에너지 공급 확대

- Punta Catalina 화력발전소가 '19년 중반에 가동 예정으로, 동국의 내수 전력 공급량이 기존 대비 약 20% 정도 확대될 전망이다.
- 다만, 발전소 건설 중 대규모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본 프로젝트의 EPC계약자인 Odebrecht 컨소시엄은 당초 계약금 이외에 708백만달러(GDP의 약 1% 규모)의 추가 공사 비용을 청구하였음. 도미니카 정부가 이에 반대하여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임.

정치동향

다닐로 메디나의 연임에 따른 안정적 우파 정책 추진력 확보

- 2016년 6월 대선 결과 여당 도미니카해방당(Partido de la Liberacion Dominicana)의 다닐로 메디나 대통령이 재선됨. 이로 인해 우파 성향의 정권이 16년 동안 지속되어 거시경제 안정, 사회보장, 치안안정, 부패척결 등의 분야에서 현행 기조 및 정책 추진이 계속될 전망이다.
- 다만, 2017년 Odebrecht 부패 스캔들로 인한 정부 지지도 하락 및 헌법상 대통령의 3차 연임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다음 대선에서 여당이 정권을 유지하게 될지 여부는 불확실함.

사회동향

아이티와 불법 이민 관련 마찰 지속

- 아이티 불법 이민으로 인한 국경 지역 치안 문제와 아이티의 보복성 수입 관세 부과는 오래된 갈등임.
- 2013년 9월 도미니카공화국 헌법재판소는 자국 내 태어난 아이들 중 부모가 법적 거주자인 경우에 한해 시민권을 인정하는 현재 제도를 1929년도부터 소급적용하여야 한다고 판결함. 이에 따라 아이티 출신의 불법이민자의 자녀로 태어났으나, 도미니카 공화국 국민으로 등록되었던 20만 명 이상이 시민권이 박탈당한 것으로 추정됨.

열악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치안 상태 해결을 위한 노력 지속

- 에너지, 교육, 보건 등 전반적인 인프라 부족 문제에 대한 정부의 투자를 요구하는 시위가 수도인 Santo Domingo를 중심으로 종종 발생함.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0-30 국가개발계획(Estrategia Nacional de Desarrollo)을 수립하고, 전기·노동 관련 시민단체와 협력하는 정책을 추진 중임.

국제관계

경제협력에 기반을 둔 실리적 외교노선 추구

- 2007년 3월 자유무역협정인 CAFTA-DR 발효로 미국과의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미국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와도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등 균형외교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는 베네수엘라로부터 Petrocaribe*에 따라 저가로 국내 소비 원유의 40%를 공급받아 왔기 때문임.
- * 베네수엘라로부터 원유 구매 후 대금의 5%~50%를 시장가격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1%의 저금리로 17년~25년 동안 분할 지불하는 협약
- 2014년 중미통합체제(SICA) 의장국 수임, 2016년 제46차 미주기구(OAS) 총회 개최, 2017년 중남미·카리브해 국가공동체(CELAC) 정상회의 개최 등 활발한 국제 관계 활동을 통해 국제 사회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음.

외채상환태도

양호한 외채 상환 태도 유지

- 2018년 6월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연체가 없고 채무의 85% 이상이 중장기 채무인 바 외채 상환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
- 다만, 도미니카공화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40% 수준으로 무난한 편이나 대외 채무비중(약 70%)이 높고, 외환 보유고가 대외채무의 28%에 불과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음.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당 행	C1	C2
OECD	4등급(2018.10)	4등급(2017.10)
Moody's	Ba3 (2017.07)	B1 (2016.06)
Fitch	BB-(2018.09)	BB-(2016.11)

Moody's, 향후 4~5%대 경제 성장 지속을 전망하며 신용등급 상향 조정

- Moody's('17.7월, B1→Ba3)는 도미니카공화국이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연평균 5%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광업 활성화 및 재외국민 송금 증가로 2020년 초반까지 평균 4~5%대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률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하며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였음.

- 2014년 이후 도미니카공화국 경제는 관광업, 건설업, 제조업 등 전반적인 산업 분야의 성장에 힘입어 최근 5개년 평균 6.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이는 중남미 지역 국가 평균 경제 성장률을 크게 뛰어 넘는 수치로 중남미 국가 내에서 1위의 경제성장을 시현함.
- 불안정한 전력 문제에 따른 재정적자 및 에너지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Punta Catalina 전력발전소를 건설 중임. 2019년 발전소가 완공되면 현재 국가 에너지 공급이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2016년 재선에 성공한 메디나 대통령은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거시 경제, 사회간접자본시설, 치안, 부정부패, 국제관계 등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정국 운영을 추진하고 있음.
- 도미니카공화국은 총부채 중 외채비중(약 70%)이 높아 외환 리스크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여 국내자금시장 활성화, 고정금리 채권으로의 대체 등 채무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도미니카공화국은 중미 국가 중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시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종전 평가 등급 대비 한 단계 상향한 C1 등급을 부여하고자 함.

중남미 주요 국가별 경제지표 비교

※ 각 국 평가일 기준 확인 수치로 최신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요 경제지표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니카라과	브라질
	(OECD 4등급) (수은 C1)	(OECD 3등급) (수은 B2)	(OECD 7등급) (수은 D2)	(OECD 5등급) (수은 C2)
GDP 규모(억달러)	810	11,425	137	17,600
1인당 GDP(달러)	7,883	9,249	2,207	8,413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4.3	5.9	3.9	3.7
재정수지/GDP(%)	-3.0	-1.4	-1.7	-8.6
경상수지/GDP(%)	-2.1	-1.7	-6.2	-1.4
외환보유액/월평균수입액(개월)	4.1	4.2	3.4	101.5
외채상환액/총수출(%)				
총외채잔액/GDP(%)	36.4	39.2	82.6	38.0
단기외채잔액/외환보유액(%)	53.0	34.5	30.4	20.3